



# 평화기



MOTTO: PRO CONCORDIA LABOR.

## 평화기(平和旗)에 대하여

‘PRO CONCORDIA LABOR (I WORK FOR PEACE)’ 기(이하 ‘평화기’라 한다)는 1897년 CORA DI BRAZZA 백작 부인(이하 ‘BRAZZA’라 한다)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이 평화기를 만들기 직전까지 적십자사에서 일했던 그녀는 시각적인 상징물의 효용을 높게 평가하였고, 평화운동가들이 그들의 일을 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1891년 HENRY PETTIT에 의하여 당시 여러 나라의 국기들을 이용하는 형태의 평화기가 고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BRAZZA는 그러한 시도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왜냐하면 PETTIT의 디자인은 어느 국기이든 거기에 하얀색 경계를 두르고 ‘평화’라는 단어를 첨가하는 형태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당시 이미 많은 국기들이 있었던 까닭에 그 국가들 수만큼 각기 다른 모양의 통일성 없는 평화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BRAZZA는 국가적 색채를 뛰어넘어 범 세계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특정 형태의 상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녀는 결국 지금 형태의 평화기를 제작하게 되었다. 당시까지 노랑, 보라, 흰색을 사용하는 국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일부러 위 세 가지 색깔들을 선택하여 혼동의 여지를 없앴고, 그로 인해 결국 평화기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랑, 보라, 흰색의 강렬한 대비를 느끼게 하면서 평화기를 국제적이고 범인류적인 운동의 상징물로 각인시키게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진정한 애국심의 표현으로 여겨지는, 신조, 종교, 국적을 뛰어넘는 범인류적 형제애의 공고화”를 지향하였다. 평화기는 ‘진정한 애국심(true patriotism)’과 평화운동의 본질인 특정가치들의 시각적 구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평화기 중앙의 방패 바로 위에 있는 ‘두 손이 서로 연결된 모습’은 평화기의 상징성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이 모습은 남자와 여자의 손을 상징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 인간성을 고양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임무가 반드시 여성과 남성의 합작물이여야 한다는 당위적 통찰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색깔의 배열에서 상징화되는 ‘인간성의 내적 발전의 지향’ 또한 평화기의 중요한 요소이다. 당시 가장 유명한 평화운동가였으며, 노벨을 움직여 노벨평화상을 만들게 한 장본인인 Bertha von Suttner는 종종 인간 내면의 진화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녀는 ‘인간성은 고양되어야 하고, 따라서 우리는 보다 숭고한 인간성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말하곤 하였다. 평화기는 이러한 의지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Susan B. Anthony가 1897년 평화기에 대해 언급할 때, 그녀는 인간 내면세계와 평화운동 간의 심오한 관련성을 상징하는 평화기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이 일을 시작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Brazza를 칭송하였다. Brazza는 평화기와 함께 개인들의 개별적 평화운동을 도울 수 있는 도구들도 개발하였다. 뒤에 언급되는 ‘Universal Peace Badge’ (이하 ‘평화 배지’라 한다)는 개인들이 평화운동을 시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녀에 의해 만들어진 도구로 볼 수 있다.

## 평화기의 상징성\*

평화기의 세 가지 색깔은 자유, 통합, 박애를 상징한다. 세 가지 색깔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신성한 사랑, 절대 지혜, 우주적인 화합’과 ‘공기, 흙, 물’을 상징해 왔다. 평화기가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한 중요한 이유다.

정열적인 사랑이나 힘 그리고 창조적인 부성(父性)과 연결되는 노랑은 그와 같은 특성 때문에 햇볕, 성숙함, 풍성함을 상징한다. 한편 일관성을 통한 승리나 자기 희생, 인내의 색깔인 보라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여성성이나 모성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순진과 순결의 색깔인 흰색은 젊음과 무경험을 상징한다.

위와 같은 세 색깔들의 상징성은 인간성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매우 적합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는 처음에는 모성의 힘에 의해 지탱되어 살아가지만, 차츰 계속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약함과 강함 사이에 존재하는 자기 희생의 정신을 배우고 발현하게 되는 것인바, 세 가지 색깔의 상징성은 이러한 인간의 발전 과정과 매우 잘 접목된다. 또한 보라색과 연결되는 부드러운 인내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상징하고, 그로 인해 세계 평화와도 연결된다. 한편 노란색이 상징하는 부성(父性)은 그 힘과 의지를 바탕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목표에 대한 순종이나 약속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게끔 이끌어준다.

평화기 깃대 맨 꼭대기에 위치한 “운명의 별(Star of Destiny)”은 평화기의 중앙 상단에도 그려져 있다. 한편 평화기 중앙에 그려져 있는 두 손을 지탱하는 비둘기 날개들은 무기를 상징하는 방패 위에 그려져 있는데, 이는 개인주의로부터 인간성을 발전시키고 이기적 야수성(野獸性)을 상호적인 관용과 범인류적인 평등으로 변환시키려 하는 인간의 노력과 열망을 잘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제어인 ‘Pro Concordia Labor’는 ‘나는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뜻으로, 방패 밑이나 깃대를 감싸고 있는 색띠들 중 한 줄에 새겨진다.

한편 앞서 소개한 ‘평화 배지(Universal Peace Badge)’는 금속 재질로 평화기의 상징물인 두 손, 비둘기 날개, 운명의 별을 담고 있는데, 운영진들에게는 금 도금을, 정회원들에게는 은 도금을, 회원 지망자들에게는 동 도금을 별도로 하고, 이 배지를 Pin으로 달 때 남자들은 노랑 리본을, 여자들은 보라색 리본을, 어린이들은 흰색 리본을 함께 달며, 배지 소유자의 개인식별번호 등이 새겨지거나 장식된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proconcordialabor.com/badge](http://proconcordialabor.com/badge)’를 방문하면 된다.

\* 이 부분은 Brazza가 1897년 제작한 ‘Pro Concordia Labor Pamphlet’에서 인용하였고, 팜플렛 원본의 표지 제작자는 보스턴 ‘Prang & Co.’인바, 해당 표지는 2015년 팜플렛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됨.

## 조화를 위한 7가지 규범

---

BRAZZA는 평화기와 평화 배지를 제작한 것 외에 ‘조화를 위한 7가지 규범(THE SEVEN RULES OF HARMONY)’도 만들었다.

이 규범은 평화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개인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바, 1897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최초의 ‘NATIONAL CONGRESS OF MOTHERS’ 회의에서 ‘UNIVERSAL PEACE UNION’ 대표들에 의하여 처음 소개된 이래 그 해 널리 전파되었고, 특히 이 규범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부모들, 후견인들, 교사들에게 추천되었다.

그러나 이 규범은 결코 아무런 효력도 없는 장난거리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규범은 사람들에게 내재된 연민과 동정심을 평화운동가들의 발전적 개혁작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 규범을 소개한다.



1. 평화를 향한 고귀한 정신이 너 인생에 살아 있는 힘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모든 시간, 생각과 돈을 그 전파에 쏟아부어라.
2. 결코 너의 가족들이나 너의 동료들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혹평, 암시들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이지 말라.
3. 법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재 존재하는 실정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인류를 상당한 이유 없이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규범들에 대해 그 변화와 수정을 위해 진지한 관심을 가져라.
4. 국가 정신과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너의 생각과 너의 영향력을 발휘하라. 그리고 목적도 없이 너의 가족이나 국가의 체계를 비난하지 말라.
5. 세상만물을 정의와 부드러움으로 다루어라. 자신의 보호나 약자의 보호를 제외하고는 결코 그들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가정과 국가의 윤리적, 물질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양육하고 번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6. 자식들이나 너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에 대해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조화의 개념을 체득시키도록 하라.
7. 집에서든 밖에서든 매일 매일 평화를 증진시킬 만한 일들을 수행하라.